

2008년 8월 19일 화 말씀

8월 15일 행사는 하늘의 지켜야 하는 절기의 행사이니 비가와도 할 건 해야 합니다. 왔는데 어린 사람들은 비 맞으면 힘들지만 큰 자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그냥 맞으면 됩니다. 비 온다고 행사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올림픽 양궁선수들 보십시오. 비가와도 하지 않습니까? 비를 맞으면서 계속합니다. 비가 온다고 '왜 이렇게 비가 오나....' 하며, 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비가와도 행사는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단상에 서면 막 흥분해서 전하고 하다 보니 본인은 잘 모릅니다. 옆에서 코치를 해줘야 합니다. 진지한 말씀 전할 때는 웃으면 안 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데. 어린 사람들은 이제 성장하고 있느니 기억이 안 납니다.

지도자들은 튼튼하지만 지도자들도 보고 힘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어린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일해야 합니다.

지도자들 건강에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 뛰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세 시간 달려야 그 때만치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글 쓰느라 눈이 많이 피로 합니다. 몇 번씩, 글 쓴 것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는 사람들은 순회 하면서 세밀하게 관리해 줘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수고하고 생명관리 잘 하도록 하십시오.

행사 때 내가 작곡한 곡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흥얼거리며 만든 곡으로 노래를 만들어 성악 부에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성악 부 열심히 돌아다니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해야 합니다. 신앙도 열심히 하고, 곡 많이 만들어 냈으니 많이 부를 수 있게 하십시오.

일본은 회원들이 똑똑하니 스스로 작곡을 많이 해서 부르고, 선생님 시를 가지고 작곡한 곡들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곡들을 함께 교정해 가면서 부르도록 하십시오.

월명동 요즘 사람 많이 오지요? 회원들도 오고 외부 사람들도 비가와도 옵니다. 도우미들 부지런히 다니면서 수고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잘 챙겨주고 회원들 부모님도 잘 챙겨주십시오.